

오라관광단지 전면 수정 불가피

도 개발사업심의의, “여건변화 반영 계획 재수립하라” 재검토 의결

JCC, “추진되지 변함없고
 향후 제주도와 협의” 방침
 도, “변경 제출하면 재심의”

5조원대의 제주지역 최대 규모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이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을 “국내 여건에 맞게 수립하라”며 ‘재검토’ 의결하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을 심사하기 위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계획 및 자원 확보의 적정성 여부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 여부로 규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했다.

그 결과 심의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과 관련해 국내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전면적으로 재수립 할 것을 주문하며 ‘재검토’ 의결했다.

앞서 JCC는 지난해 11월 오라단지 자본검증위원회의 자본조달 제안 제시안이 소명자료로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달 투자사업 확충그림의 재무 지표 등 자본조달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도에 제출했다.

자본검증위는 지난해 JCC에 분양수입을 제외한 투자금 3조3730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은행계좌에 예치토록 요구했다. 이에 JCC 측은 지난 7월 도에 3373억원의 예치는 불가하고 사업 승인 시 1200억원을 사전 예치하겠다는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자본검증 문제는 재검토 요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심의위는 사업계획에 비해 수익성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대안제시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5조 2180억원을 투입, 제주도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에 제주 최대 규

모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관광호텔, 휴양콘도, 워터파크, 골프장, 상업시설, 생태전시관 등이 계획됐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재검토’를 주문, 향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사) 측이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 재도전 할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JCC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변화가 없고 개발사업 심의에서 회사 입장에 대해 최대한 설명했다”면서 “재검토 의결을 떠나서 향후 추진 계획 등 업무는 제주도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오라관광단지 사업자 측에서 전면적으로 변경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옛 사파리월드)은 원안 의결됐다. 다만 심의위는 휴양시설 조성 시 자연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시원한 계곡물에서 무더위 식히기
 한 계곡물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1일 서귀포시 영천동 돈내코계곡 원양폭포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 시원한 계곡물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긴 장마 끝 폭염... 농작물 관리 비상

농작물관리 주의보 발령
 고온으로 당근·월동채소
 고사·생육불량 등 우려

긴 장마끝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역대 최장 장마로 농작물 생육이 저조한 상태에서 폭염이 지속될 경우 생육불량 및 수량 감소 등이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 관리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

해 제주지역 장마는 1973년 기상관측 이후 가장 빠른 6월 10일 시작돼 지난달 28일 오전까지 49일간 이어졌다. 또한 강우일수는 29일로 2일에 한번 꼴로 비가 내리면서 발작물 침수에 의한 뿌리 장해, 노지감률 병해 발생 증가, 월동채소 묘종 웃자람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 앞선 달났던격으로 이번에는 폭염이 연일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10일 전후 파종된 당근은 발아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고온에 의해 고사 될 수 있으며, 참깨는 개화

및 꼬투리 맺힘 불량과 종실 비대 지연으로 수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양배추, 콜라비, 비트 등 월동채소는 육묘 중으로 장마기간 웃자람 현상이 있어 고온을 접할 경우 생육 불량과 고사될 수 있으며 노지수박은 햇빛 과다 노출에 의한 탄저병, 열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시설감귤은 착색 지연과 호흡 작용 과다로 당 축적 감소, 일소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강한 일사로 토양 내 수분증발 가속화를 조장시켜 가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태윤기자

제주도, 공유재산 매각기준 오늘부터 완화

소규모 토지 용도지역별 200㎡이하 → 400㎡로 확대
 사유건물 점유자·과반 공유지분자에 토지 매각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재산의 매각 기준을 3일부터 완화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당초 소규모 토지 매각기준은 일률적으로 일단의 토지 면적 200㎡ 이하였지만,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정으로 1필지 매각 가능 면적이 용도지역별로 400㎡까지로 확대된다.

용도지역별 기준은 ▷녹지지역,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400㎡ 이

하 ▷주거·상업·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종전과 동일한 200㎡ 이하다.

다만 공시지가 3000만원 이하이며, 행정 목적에 사용계획이 없어야 하고, 분할 매각을 할 수 없는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또한, 사유건물(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에 점유된 공유지 매각은 당초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만 한정됐던 것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모든 건물로 확대된다. 백낙기기자 haru@ihalla.com

그 밖에 동일한 사유지에 둘러싸인 공유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공동 지분 공유지(동지역 500㎡, 읍·면 1,000㎡ 이하)도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개인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도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2016년 8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매각기준 완화 등 운영 방안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는 올해 초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제주도민, 일 관련 시간 투자 전국 최고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제주도민들의 필수활동 시간은 11시간 27분, 의무활동 시간은 7시간 49분, 여가활동에 4시간 44분을 각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도민들의 출·퇴근시간은 1시간 2분으로 5년 전보다 5분 늘어났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일 관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시간 38분보다 길었다.

도민들의 여가시간은 4시간 44분으로, 미디어 이용에 가장 많은 2시간 43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제 및 참여 39분, 스포츠 및 레포츠 30분, 문화 및 관광 4분, 기타에 47분을 소요하고 있다.

수면 시간은 서울과 전남이 8시간 6분으로 가장 적고 충남이 8시간 28분으로 가장 길었다. 제주 도민들의 수면시간은 8시간 20분이다. 가사노동시간은 세종이 2시간 12분으로 가장 많고 광주가 1시간 47분으로 가장 적었다. 제주는 1시간 50분이다. 고대리기자

www.jeuwelling.com

해녀영양식
 제주해녀들이 직접 만든

해삼몸국

해삼몸국은 이런 분들이 드시면 특히 좋아요!

-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험생**
- 어머니가 차려준 집밥을 그리워하는 **혼밥족**
- 요즘 들어 부쩍 입맛이 없어하는 연로하신 **부모님**
- 면역력 높이는 특별 영양식을 선호하는 **미식가**

해삼몸국의 특징

- 8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 잘 건조된 모자반을 찬 물에 불려 염분을 뺀 몸
-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우는 몸에 좋은 해삼
- 3無 첨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조리방법

전자레인지 조리시
 해동 후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넣어 전용 덮개 또는 랍을 씌워 약 4분(700W 기준) 데워 드시기 바랍니다. *1KW 기준 3분

냄비 조리 시 (직접 가열 시)
 해동 후 개봉하여 냄비 뚜껑에 부은 후 약 3~4분간 더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되어 있으니 기호에 맞게 양념을 더 넣어 드세요 오래 끓이면 짭 수 있으니 조리시간을 준수하여 주세요

중탕 조리시
 해동 후 끓는 물에 제품을 봉지째 그대로 넣고 약 3~4분간 더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 끓는 물 중탕 조리 시 제품이 터질지 모르니 냄비의 뚜껑을 닫지 마십시오

※ 개인 취향에 따라 '청양고추'와 '대파', '후추'를 넣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 **070-4187-9000**

제조 판매원 **신한에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죽성서길 7-10